

23년간 가족 보디가드 돼 준 ‘각 그랜저’·어머니가 마지막 탔던 쏘나타...

# 사연 담긴 낡은 자동차 작품으로 재탄생 하다



이재결씨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서려있는 차량 ‘쏘나타3’를 이용해 박재영 작가가 작업한 작품 ‘DownLeit Memory Simulator Vol.1’.

**광주시립미술관 ‘브릴리언트 메모리즈:동행’展**

8월 7일까지...현대차 공동주최

500여 사연 중 선정 車 매입

작가 12명 참여 12개 작품 전시



낡은 엘란트라에 얹힌 손기동씨의 첫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김기라·김형규 작가가 작업한 ‘잘자요 내사랑!!’.



작품 ‘창 너머의 기억’. 안익현씨 가족과 21년을 함께하며 추억과 행복이 깃든 승합차 ‘그레이스’ 내부를 이주용 작가가 꽃밭으로 꾸몄다.

자동차는 운전자에게 발이 되고 집이 되며 때로는 친구도 된다.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에 얹힌 사연이 있을 것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오는 8월7일까지 열리는 ‘브릴리언트 메모리즈: 동행( Brilliant Memories: With)’은 자동차에 얹힌 사연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현대자동차와 광주시립미술관,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공동 주최했으며 지난달 서울 전시에 이어 광주에서 두번째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폐차나 판매로 차량을 떠나 보낼 차주들에게 응모받은 사연이나 참여 작가 개인 이야기, 탈북 새터민이 한국에 와서 겪은 이야기 등을 소재로 만든 작품을 선보인다. 500여 사연 중 선정된 차주들에게 자동차를 매입해 작가들이 작품으로 재탄생시켰다.

참여작가는 광주 출신 김상연씨를 비롯해 김기라·김형규, 김승영, 김진희, 민우식, 박경근, 박문희, 박재영, 이주용, 전준호, 정연두, 홍원석 등 12팀이다.

미술관 로비를 들어가면 반가운 자동차가 제일 먼저 눈에 띈다. 고급의 대명사 ‘각 그랜저’로 불리던 1세대 그랜저다. 홍원석 작가에 의해 작품 ‘블랙스타’로 변신했다. 이 작품은 조운희씨 가족에게 지난 23년 간 보디가드가 돼 준 1991년식 그랜저가 주인공이다. 조씨는 연로한 아버지 모습과 닮은 ‘각 그랜저’를 보고 가족 사랑을 떠올렸다. 홍 작가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아트 택시로 만들었다.

박재영 작가가 제작한 ‘DownLeit Memory Simulator Vol.1’은 독특한 모양새다. 투명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엔진 실린더는 씁쓸이 움직이고 속에는 머리핀, 화장품 등이 들어있다. 1998년식 쏘나타3로 만든

이 작품에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담겨있다. 사연 주인공은 중학교 때 부모님 이혼으로 떨어져 살던 어머니를 14년 만에 다시 만난다. 하지만 재회한지 1년만에 어머니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작품 재료가 된 차량은 주인공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탔던 자동차다.

발길을 옮기면 좀 더 밝은 분위기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작품 ‘창 너머의 기억’(이주용)은 승합차 ‘그레이스’ 내부를 꽃밭으로 변신했다. 안익현씨 가족 차량으로, 장모에게서 물려받은 자동차다. 수퍼마켓을 운영하던 안씨 장모는 이삿길 때도, 상견례 때도, 첫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그레이스와 함께 다녔다. 이후에는 안씨 자녀가 타는 보로로 자전거, 가족 캠핑용 돗자리, 텐트가 차지했다. 이 작가는 안씨 가족이 느꼈던 행복을 꽃으로 묘사하며 차량 내부는 현실 너머에 존재하는 이상향으로 봤다.

2층에 전시된 ‘사막에서 핀 생명’(박문희)은 사막 모형에 트럭 부품을 배치시켰다. 차주 정혜란씨는 남편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며 고난을 겪었다. 부부는 트럭으로 아무 일이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중고 포터를 구입했다. 이후 빛도 갓고 집도 장만하며 트럭은 ‘복덩이’가 됐다. 사막 속에서 보이는 트럭 부품은 ‘희망’이다.

그 밖에 김상연 작가는 운주문씨와 23년을 함께한 친구 ‘엑센트’(1994년식) 이야기를 들려준다. 운씨를 엑센트를 타며 아내를 만났고 딸을 낳았으며 인생을 함께 했다. 잔고장이 잦아지며 폐차 생각이 했지만 정 때문에 도저히 버릴 수 없었다. 김 작가는 타이어, 핸들, 계기판 등을 ‘뽀비우스의 띠’처럼 늘어놓으며 마음 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문의 062-613-714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내고향 완도의 빛

신선 작가 개인전...5~12일 완도 문화예술의 전당



◀ ‘희망 완도’

아름다운 남도 풍경을 캔버스에 옮겨온 안도 출신 신선 작가가 ‘고향의 빛’을 주제로 5~12일 완도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장보고 수상물축제’(4~8일) 초대전으로, 신 작가는 고향을 소재로 그린 작품 35점을 출품한다.

고금도에서 태어난 신씨는 백민 조규일 화백에게 사사하며 강렬한 색채와 생생한 표현력을 보여준다. 조화백은 신씨에게 ‘청아’라는 호를 지어주기도 했다.

작품 ‘희망 완도’는 푸른 하늘, 바다와 초록색 산, 하얀 해변 건물들이 어우러져 화사한 느낌을 준다.

유채꽃이 흐드러진 ‘청산도’는 노란빛으로 화풍을 가득 채웠다. 그밖에 ‘명사십리’, ‘고금대교’ 등 풍경화를 비롯해 분홍 무궁화가 등장하는 ‘소통’, 본인을 그린 ‘자화상’ 등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신씨는 “고향 사람들에게 소박하게나마 고향 풍경을 선사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신씨는 호남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 미술대전 비구상부문 입선(2015), 목우회 미술대전 입상(201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2009) 등을 수상했다. 광주사생회, 전우회, 예술사회 회원 등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문의 062-552-7568. /김용희기자 kimyh@

## 강숙자오페라 라인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 참여

6~8일 ‘버섯 피자’ 공연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은 다양한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오페라 축제다. 예산 지원을 받는 국공립 단체와 달리 탄탄한 실력을 갖춘 민간 오페라단들의 작품을 만나는 제7회 대한민국오페라페스티벌이 6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 자유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한국오페라단의 ‘리날도’, 강화자배세토오페라단의 ‘리콜레토’, 클로리아오페라단의 ‘카르멘’이 관객을 만난다. 지역에서는 강숙자오페라 라인이 유일하게 참여한다. 공연 작은 20세기 희극 오페라 대가 세이무어 바랍의 ‘버섯 피자’(6~8일)다.

19세기 이탈리아 네 남녀의 만남, 사랑, 배신, 질투, 증오, 죽음을 그린 ‘버섯피자’는 연극적 요소가 강하고 아름다운 벨칸토 선율로

이뤄져 오페라를 처음 보는 관객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작품이다.

스코르피오와 사랑에 빠진 불륜투아는 남편이 좋아하는 버섯피자에 독버섯을 넣어 남편 포르마조 백작을 독살시키려는 계락을 세운다. 백작을 흡모하는 불륜투아의 하녀 포비아는 백작에게 아내의 배신을 경고하고 그녀에게 애인이 있음을 알린다.

불륜투아 역으로 손숙경, 고수연, 장은수씨가 출연하며 스코르피오 역은 윤승환, 노경범이 맡았다. 또 포르마조 역의 김경호, 마명준, 김종우를 비롯해 포비아 역의 양현애, 박선영, 박태연씨 등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총감독은 강숙자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 연출은 김하정 유피예술극단 원장이 맡았다. 지휘는 김병무씨, 오케반주는 K.O.I 오케스트라다. 문의 02-580-1300, 062-514-709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맨션 1층)

**아프리카 쇼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 400여점 전시

# 에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6년 5월호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 특집 도시농업 전성시대

충만한 도시농부들의 경작본능  
지친 일상 위로하는 치유의 가드닝  
박희란 씨의 베란다 텃밭 가꾸기

### 5·18기획 세월 흘러도 잊을 수 없는 노래, 민중가요

‘광주’로 정리한 민중가요 100곡  
공감의 경향이 필요한 광주 트라우마

2015광주하계 U대회 이후  
광주유니비사이드 D+300일,  
광주에 남긴 것

문학 화제 맨부커상 최후호보 올라 영미권서  
호평받는 소설가 한강

남도 美味樂 **고흥**

거침없는 푸른 남해의 흥광  
우주를 배우고 즐기는 우주항공축제

예향 초대석

### 운명 읽는 음악평론가 강현

“타고난 기질과 특성 알면  
삶의 방향이 보이죠”

남도의 장인들⑦  
5대, 70년을 이어온 전통  
**참빗장 고행주**

사람이 브랜드다⑦  
생명과 창조 의 ‘시메트리’  
마산 & 조각가 문신

예향이 만난 이 사람  
‘세로토닌’적 삶 강조하는 힐링 전도사 이시형  
함께 밥먹는 ‘빨간냄비’ 캠페인 펼치는 박재식  
부활하는 ‘패트리아트’ 광주FC 정조국

노중훈의 꿈의 여행⑤  
눈부시다, 유적도 바다도  
멕시코

전북 문화예술 공간을 찾아서①  
정읍 권번문화예술원 ‘예가인’

문화 화제  
아프리카 쇼나조각전 여는  
세계조각장식박물관

스타 데이트  
“피란만장 신석호는 정말 하고 싶었던 역할”  
SBS ‘판타지’로 드라마 복귀한 배우 지성

